

MERCOSUR의 경제 성과분석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윤현덕(승실대학교)

글의 순서

- I. 서론
- II.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구조적 구성배경과 현황
- III.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경제적 성과 분석
- IV.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발전과제 및 전망
- V. 결론

I. 서론

80년대 후반과 90년대 초반에 진행되어온 남미의 거시 경제적 변화과정과 더불어 95년도의 남미공동시장(Mercosur) 출범은 이 지역의 장기적인 경제구조 변화를 유도해 내는 의미있는 변화라고 볼 수 있다. 유럽공동시장,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등의 경제블록구축이 현실화되고 WTO체제가 출범함으로써 세계는 지역간, 국가간 경쟁과 함께 협력체제의 구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90년대 중반부터 진행된 남미국가들의 정치개혁에 따른 민주화와 경제개혁에 의한 경제회복과 안정화 그리고 무역자유화에 따른 수출입확대 등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남미 국가들 중 정치 및 경제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그리고 우루과이,

파라과이가 참여하는 Mercosur는 이 4개국의 경제비중과 잠재력으로 볼 때 거대한 남미경제통합체가 구축된 것으로 그 향방이 주목된다.

우리 나라는 1990년대 초까지 Mercosur 국가들에 대하여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지만, 90년대 들어 지속되어 온 Mercosur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경제개방정책에 편승한 시장진출로 이를 역조시켜 커다란 무역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Mercosur와의 무역수지는 1993년 흑자로 반전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1998년에는 17억 달러로 정점에 달했으며, 2000년에는 12억 달러로 전년대비 65.6%의 증가율을 보여 지속적인 확대가 예상되고 있다 (외교통상부, 2000, 2001).

Mercosur 시장의 형성은 남미전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시장증대에 따른 생산범위의 확대로 생산체제의 전반적인 강화, 타 경제블록과의 협상기반 강화가 가속되는 등 통합체로서의 기반 구축이 실현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 Mercosur는 남부 남미국가들에게 경제문제를 공동으로 타개하며 새로운 글로벌시대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의 배경을 가지고 많은 어려움 속에 출범하였다. 이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경제적 성과의 분석과 이에 따른 각 회원국들의 반응과 정책 그리고 갈등 등을 조명하는 것은 앞으로 Mercosur의 향방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을 구상하는데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Mercosur 공동시장의 회원국인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4개국의 Mercosur 공동시장의 경제, 사회, 정치적 의미를 평가하여 앞으로 Mercosur의 향방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전망하고 회원국들간의 협력관계를 분석하여 Mercosur시장의 발전 가능성과 대 역외국들에 대한 정책의 방향과 과제 등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구조적 구성배경과 현황

남미공동시장(Mercosur)는 남미지역에서의 자유무역과 관세동맹을 목표로 결성된 경제블록으로서 91년 3월 파라과이에서 이루어진

아순시온조약에 의해 1995년 1월 1일 공식 출범하였다. 현재 Mercosur는 회원국으로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및 우루과이, 준회원국으로 칠레와 볼리비아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정보원, 1999, 2000).

Mercosur는 1960년 이후 지속되어온 중남미 국가들의 경제통합노력이 가장 큰 결실을 본 사례로서 1991년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간의 자유무역지대 창설을 시발로 꾸준한 발전을 거듭하여 오늘날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 유럽연합(EU), 일본에 이어 세계 4위 규모의 시장으로 부상하였다.

〈표 1〉 Mercosur의 경제규모

	인구 (백만명)	GDP (억달러)	1인당GDP (달러)	총수출 (억달러)	총수입 (억달러)
브라질	163.7	5,197	3,208	468	487
아르헨티나	36.6	2,835	7,747	236	242
우루과이	3.3	207	6,272	22	32
파라과이	5.4	81	1,500	27	28
칠레	15.0	689	3,926	156	140
볼리비아	8.1	83	1,024	9	13
합계	232.1	9,092	3,946	918	942

자료: 월간 중남미정보. 2000.

Mercosur는 95년 1월부터는 수입품목별로 0~20%, 그리고 평균 14%의 대외공동관세를 부과하는 관세동맹으로 발전하였고, 96년 6월에는 칠레가 12월에는 볼리비아가 차례로 Mercosur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함으로써 Mercosur는 중남미에서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권 경제통합체중 가장 강력한 협상력을 지닌 블록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신인섭, 2000). '91년 출범이래로 Mercosur는 남미지역 경제성장과

통합의 상징이었으며, 회원국의 교역량은 90년 40억불에서 97년 180억불로 급증하였으나 최근 Mercosur의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경기침체는 그 동안의 Mercosur의 발전과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Mercosur는 98년 출범 이래 최초로 회원국간 교역량의 감소를 기록했고, 99년에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양국의 산업생산의 급격한 위축으로 인한 경기회복의 불투명으로 최대의 고비를 맞았다. 99년 브라질의 자유변동환을 도입은 Mercosur의 무역구조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으며 아르헨티나는 가장 큰 피해를 입었으며,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2000년 4월 양국은 경제 성장과 발전에 있어서 Mercosur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면서 Mercosur을 확대, 발전시켜 나갈 새로운 방안들을 모색하는데 합의하여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다 (한국수출입은행, 2000).

1. Mercosur 공동시장 구축 목표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4개국은 Mercosur 공동시장 형성을 추진하게 된 이유와 목표를 다음과 같이 아순시온협약에서 제시하고 있다;

(1) 경제통합을 통한 시장확대는 이 지역 경제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2) 이러한 목표는 상호 거시경제정책의 조율과 보완성의 유지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으며, (3) 경제통합을 통한 시장확대는 국제적 추세로서 많은 국가들이 국제사회에서의 위상강화를 시도하고 있고, (4) 이러한 추세에 비추어 경제통합의 추진은 시의 적절한 대응조치이다. (5) 4개국의 협정은 향후 점차적으로 전체 라틴아메리카 통합에 기여할 조치로서 인식되어야 할 것이며, (6) 국민들에게 보다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고 그 질을 개선함으로써 생활 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각 회원국의 과학진흥과 경제의 현대화가 달성되어야 함을 확신한다. (7) 이러한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상이한 국민들 간의 유대를 강화할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정치적인 의지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같이 한다.

Mercosur는 초기에 자유무역지대에서 관세동맹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회원국들간에 자본과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공동시장으로 발전하는 다단계 목표를 두고 있다 (박윤재, 윤현덕, 1994). 아순시온 조약에서부터 Mercosur가 설립되기 전인 1994년 말까지의 과도기는 자유무역지대의 형성단계로 볼 수가 있고, 현재 Mercosur는 대외공동관세제도를 채택하고 있지만 일정기간 예외품목 규제를 두고 있어 불완전한 관세동맹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김원호 외, 1997). Mercosur는 공동시장이라는 명칭을 갖고 있지만 경제통합단계로 볼 때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와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하는 완전한 의미의 공동시장(Common Market)에 도달하지는 못하였다. Mercosur는 1991년 역내 상품교역에 대한 관세 철폐를 통한 자유무역지대(FTA : Free Trade Area)로 출범하여 1995년부터는 대외공동관세(CET : Common External Tariffs) 설정을 통해 관세동맹(Customs Union)의 형태로 발전하였으며 한편으로는 장기적 목표인 공동시장형성을 위한 노력도 부분적으로 진행하였다. 그러나 아직 역내 관세가 모두 없어지지 않았고 대외공동관세 적용도 통일되지 않아 관세동맹으로서의 통합도 불완전한 상태이다.

2. Mercosur 공동시장 구축에 따른 기대효과

상호협력과 상호의존의 필요성이 증대하면서 Mercosur는 원래 공동시장을 지향하고 추진되었으나, 현재의 상황에서 보면 아직 관세동맹의 수준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경제통합의 수준이 공동시장이나 경제동맹의 단계에 도달하게 되면 생산요소가 가맹국간에 자유롭게 이동하게 되며 이에 따라 생산요소의 최적사용이 가능하게 되고, 가맹국간에 금융 및 재정정책의 조화가 달성됨으로서 경제의 효율성이 일층 더 제고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김원호 편, 1999).

이와 같은 효과에 추가하여 고려되어야 할 Mercosur형성의 효과로서는, 자유무역협정이나 관세동맹을 창설할 경우 무역창출 효과와 무역전환 효과가 일반적으로 일어난다는 점이다. 무역창출 효과란

이러한 경제통합이 일어날 경우 가맹국이 이제까지 서로 간에 부과하여 오던 무역제한조치를 철폐 또는 완화함으로써 가맹국의 무역이 확대되는 효과를 말한다.

무역전환 효과란 Mercosur 회원국들이 공동시장을 형성하게 됨에 따라 종전에 역외국가들로 부터의 수입이 역내국가들 간의 교역으로 전환되는 효과를 말한다. 한편으로는 Mercosur 역내기업들에게 유리한 제품 및 기술표준, 관세 및 현지조달비율의 강화 등을 통한 역외기업에 대한 차등대우로 인하여, 다른 한편으로는 역내시장완성의 결과로 유발될 역내기업들의 생산성 및 경영효율 향상에 기인하여 이러한 무역전환효과는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무역전환효과 또한 역내시장규모의 확대에 기여하는 한 요인이 된다 (Almeida, 1993).

관세동맹 및 공동시장의 형성은 거시 경제적인 관점에서 파악되는 제반 효과 이외에 주요 경제단위인 기업의 활동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경쟁환경여건에 많은 변화를 초래한다. Mercosur 형성이 시장규모확대, 상품 및 부품의 표준화, 산업구조의 재편, 직접투자 및 전략적 제휴의 증가 측면을 중심으로 기업의 경쟁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변화를 살펴보기로 한다 (김원호 편, 1999).

1) 시장규모확대

아순시온 협약 이래로 많은 이전과 잡음이 발생하였으나 이들 회원국들은 공동시장형성을 위한 조치들을 꾸준히 취하여 왔고 그 결과 회원국 간의 교역은 크게 증가하였다. 브라질은 아르헨티나의 최대 수출국이며, 아르헨티나는 브라질의 제 2의 수출시장이고, 석유공급원이다. 아르헨티나의 브라질에 대한 수출이 최근 급증하면서 무역수지상의 적자가 대폭 감소되는 가운데 양국간의 무역수지도 균형을 이루어가고 있다. 이와 같은 역내교역의 급증현상은 역내기업들의 입장에서 보면 시장규모의 대폭 확대를 뜻한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간의 교역이 급증한 것은 양국의 경제가 서로 보완적인 측면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아르헨티나는 에너지 생산량이 풍부하여 사우디 아라비아에 이어 브라질에 두 번째로 많은 석유

를 공급하는 나라이다. 또한 아르헨티나는 곡물생산량이 자체수요를 크게 능가하는 반면, 브라질은 곡물 수입국으로 산업구조가 매우 보완적인 측면이 강하다. 아르헨티나의 산업설비는 이미 매우 낙후되어 아르헨티나의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보다 훨씬 큰 브라질 시장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이 필요하며, 브라질의 산업은 아르헨티나에 비해서 보다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기에 기존의 브라질 소비자 1억 6천만에 3천 3백만 아르헨티나의 소비자를 추가할 수 있으리라는 전망은 양국 기업들에게 시장확대를 기대할 수 있는 매력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2) 상품 및 부품의 표준화

Mercosur 공동시장형성으로 예견될 수 있는 주요 현상의 하나는 생산, 판매, 유통, 광고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종전에 비하여 국가별로 차이를 두지 아니하고 제품을 표준화하여 공급하는 경향이 증대될 것이라는 점이다. 회원국간에 자유로운 상품이동이 가능하게 되고, 기술 및 제품표준의 공동설정이 추진됨에 따라 종래에는 개별국가 중심으로 경영전략을 추진해 왔지만, 이제 공동시장 전체를 단일시장으로 간주하며 경영전략을 펼치는 기업들이 날로 증가하게 되며, 많은 기업들이 표준화된 제품의 생산규모를 증대시켜 생산공정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다. 이러한 추세는 부분적으로 이미 회원국 기업들의 전략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예를 들어 Volkswagen 과 Ford의 합작회사인 Autolatina는 종전에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를 각기 개별시장으로 취급하였으나 이제는 양국시장을 하나의 시장으로 간주하고 모든 부품과 제품을 표준화하기로 하는 계획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회사는 아르헨티나의 꼬르도바(Cordoba) 소재의 신설공장에서 생산하는 트랜스미션을 이 회사가 브라질에서 생산하는 중형차들에 장착하는 방식을 도입하였다 (McKinsey Global Institute, 1998).

식품회사들도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고 있어, 브라질의 최대 식품회사의 하나인 Sadia는 아르헨티나의 한 회사와 부에노스 아이레

스에 합작기업을 설립하여 자사상품의 유통을 관장하도록 하였다. 거대한 잠재력을 가진 지역을 하나의 시장으로 보고 이 시장을 효과적으로 공략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아르헨티나 기업과의 합작을 추진한 것이다.

역내 국가들 간의 교역의 증대와 관광 등을 통한 접촉의 증대는 이 지역 소비자들의 소비 행태의 모방과 동일화를 촉진하는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또한 기업측의 상품 및 부품의 표준화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3) 산업구조의 재편

역내 산업구조에 대한 변화가 공동시장 형성에 따른 효과만으로 이해하기는 어려우며, 특히 오랜 기간 수입대체 정책을 추구하고 국내시장 위주의 폐쇄적 경제정책을 추진해오던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대외 지향적인 경제체제를 도입하는 단계에서 Mercosur 공동시장이 출범하게 된 것이며, Mercosur 없이도 이들 국가들의 교역은 증대되었을 것이고, 산업구조의 재편이 진전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Mercosur 공동시장의 형성은 이러한 현상들을 더욱 촉진하는 요인임에는 틀림이 없다 (김원호, 1996).

공동시장의 형성과 더불어 상품, 노동 및 자본의 국가간 이전이 자유로워지고, 상품 특성 및 소비특성이 표준화됨에 따라서, 기업들이 추구하는 전략적 시장단위의 규모가 증대하게 되면, 그 결과로서 기업의 생산 및 영업단위도 확대될 것이다. 생산 및 영업단위의 확대현상은 이미 진행되기 시작하였고 향후 더욱 가속화되리라 전망된다. 생산 및 영업단위의 확대는 두 가지 차원의 통합에 의해서 진행된다.

첫째, 개별 기업내의 제조부문 및 유통부문 간에 현재보다 큰 규모를 갖추음으로서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의도에서 기업 내부적으로 각 부서간 또는 생산단위간에 추진되는 통합이다. 이러한 활동의 결과로 많은 기업들이 보유 운영하게 되는 생산 및 유통시설은 종전에 비하여 그 수는 감소되는 반면에 그 규모는 증대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국경에서의 통관절차에 현재 소요되는 시간이 24시간을 초과하고 있고, 철로표준의 차이 및 트럭운송에 관한 규제에 의하여 국경을 넘을 때에 현지의 운송수단으로 바꾸어 적재하고 운송해야 하는 많은 번거로움과 비 능률이 존재하고 있는데, Mercosur와 더불어 이러한 점들이 개선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역내 국가간의 운송효율이 제고되고, 화물운송에 소요되는 시간에 관하여 어느 정도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게 되면, 유통비용의 절감과 물류관리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며, 그 결과 물류 및 유통부문의 관리도 종전에는 개별시장 단위로 이루어지던 것이 공동시장 단위로 집행될 것이다 (McKinsey Global Institute, 1998).

둘째, 경제통합의 결과로 시장규모가 증대됨에 따라 기업들 간에 합병 및 매수를 통해 생산의 효율성 및 시장 장악력의 제고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산업 집중화 현상이 진전될 것이며, 기업들 간의 합병과 매수를 가속화시킬 것이다.

아울러 역외기업에 의한 직접투자 및 전략적 제휴의 증가가 회원국들의 외채문제가 개선되고 전반적인 경제상황이 좋아지면서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Mercosur회원국들이 현재의 개방 경제체제를 지향하는 정책을 지속하며 공동시장형성을 위한 단계적 조치들을 계속해서 취해 나간다면, 역내시장이 제공하는 매력에 이끌려 시장확보, 생산효율성확보 및 자원확보를 목표로 하는 외국인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Ⅲ.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경제적 성과 분석

1. Mercosur 공동시장 구축에 따른 변화

Mercosur 회원국들의 통합 경제성장률을 보면 95년 전까지 통합에 대한 기대감과 각 회원국들간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전체 시장의

규모와 함께 각국의 경제성장률도 크게 향상된 것을 볼 수 있으나, 95년 이후 각 회원국의 내부적인 정치적, 산업 구조적 문제와 아시아 금융위기와 브라질의 헤알화 평가절하 등 외적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전체적인 GDP성장률에 감소현상이 있었으나 지난 10년간의 평균 성장률은 년3.3%로 나타나고 있다 (CEPAL, 2000).

Mercosur 회원국들은 기록적인 저 인플레이션을 나타내며 99년을 마감하였으며 각 회원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면, 아르헨티나는 인플레이션 -1.8%로 1934년 이래 최저의 소비자물가지수를 기록하였으며, 브라질은 예외적으로 98년 1.65% 보다 높은 8.94%를 기록하였으나 2000년에는 6%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우루과이도 반세기 만에 최저인 4.17%를 기록했으며 이는 1998년 8.63%의 절반 수준이다. 파라과이는 98년 14.6%에서 크게 하락하여 76년 이래 최저치인 5.4%를 기록하였으며, 칠레는 98년보다 2.4포인트 떨어진 2.3%를 기록하여 1938년 인플레이션 집계기 시작된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였고 1990년 27.3%를 기록한 이래 계속적인 하락세이다. 그러나 Mercosur 회원국들의 저 인플레이션 기록의 이면에는 아시아 금융위기와 Mercosur를 주도하고 있는 브라질의 경우 99년 까르도조 대통령의 재선후 재정 및 무역 적자와 헤알화 평가 절하의 여파로 극심한 경기침체와 디플레이션에 시달렸다 (CEPAL, 2000; The Economic Intelligence Unit, 1999).

2. Mercosur 공동시장의 경제성과에 대한 평가

1) 교역증대 성과

대외공동관세의 적용이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Mercosur의 대외 보호무역조치가 크게 축소되어 왔다. 최혜국(MFN : Most Favored Nation) 대우 단순 평균 관세는 '86년 41%에서 10년 뒤인 '96년에 12%로 인하되었으며, 이에 힘입어 1990~97년 사이 교역량이 급속히 확대되었다. 총수출은 '90년에 465억 달러에서 '97년에는 836억 달러로 연평균 8.7% 증가하였다. 총수입도 90~97년 사이

316억 달러에서 1,057억 달러로 연평균 18.8%나 증가하였다. 그러나 1998년에는 국제외환위기 발생으로 총수출, 총수입이 각각 전년대비 2.6%, 2.2% 감소하였으며 지난해에도 역내 경기침체로 총수출이 14% 감소된 것으로 추정된다 (김형주, 2000 ;한국수출입은행, 2000).

역내관세 철폐로 역내교역량은 더욱 확대되어 '90~'97년 사이 역내 수출은 41억 달러에서 207억 달러로 연평균 26%나 증가하였고 역내수입도 45억 달러에서 216억 달러로 연평균 25.2% 증가하였다. 그러나 '98년에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경기침체로 역내 교역량이 1991년 이래 처음으로 2% 감소하였으며 지난해에도 브라질, 아르헨티나 간 무역분쟁으로 역내수출이 크게 위축되어 전년대비 32%나 감소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총 수출에서 역내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에 8.9%에서 1998년에는 25.1%로 크게 증가하였고, 총수입에서 역내수입이 차지하는 비중도 1990년 14.1%에서 1998년 21.4%로 커졌다. 이는 각 회원국 간의 상호의존성이 매우 커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Mercosur가 각 회원국의 중요한 수출시장이자 수입상대국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특히 브라질은 Mercosur내에서 가장 중요한 무역상대국으로서 아르헨티나 수출의 약 1/3, 파라과이 수출의 약 40%, 우루과이 수출의 약 35%를 차지하였다.

Mercosur의 여타 교역상대국과의 교역비중 추이를 보면 Mercosur의 여타 중남미 국가로의 수출비중은 '90년 8%에서 '98년 11%로 소폭 증가하였으나, 반면에 여타 지역과의 교역비중은 축소되었는데 특히 대 EU 수출비중은 1990년 32%에서 1998년 22%로 크게 줄어들었다. 수입추이를 보면 Mercosur의 여타 중남미 국가로부터의 수입비중은 '90년 7%에서 '98년에 5%로 다소 축소된 반면 미국, 캐나다, EU 등으로부터의 수입비중은 소폭 증가하였다(CEPAL, 2000;EIU Country Report, 1999; 한국수출입은행, 2000).

2) 경제통합을 위한 추가 조치 채택

Mercosur 회원국들은 역내관세와 비관세장벽 철폐를 통해 역내 무

역 자유화가 크게 활성화되었지만 자국 산업보호와 국제수지악화 방지를 위해 Mercosur 규정에 위배되는 보호 무역조치를 채택하여 무역을 제한하여 왔다. 이와 같이 역내 상품교역과 관련하여 일부 어려움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Mercosur 회원국들의 상호의존도가 심화됨에 따라 경제통합과 관련된 여타 여러 부문에서 다소의 진전을 이루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서비스교역에 대한 제한조치; 97년 12월 회원국들은 2007년까지 서비스 교역에 대한 제한조치를 단계적으로 제거해 나가기로 합의한 몬테비데오 의정서(Protocol of Services)에 서명하였다. 이에 따라 공식협상이 1998년 하반기부터 진행되어 왔으며 금융서비스, 항공운송, 위성통신, 보험 및 전문직 서비스 등과 같은 특수한 부문에서는 자유화가 조기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 공공조달 정책에 대한 공동접근; OECD가 추진하고 있는 것과 맞추어 공공조달 정책에 대한 공동접근 방법을 도출해 내기 위한 특별그룹이 설립되었다. 회원국 기업들은 특혜를 누릴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역내 노동이동; 97년 Mercosur 단일여권 도입 제안은 중기적으로 공동시장 형성에 대한 정치적 의지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역내의 노동이동은 아직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현재 협상중인 전문직 서비스의 이동자유화는 서비스 부문에서의 중요한 진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취득학위 상호인정; 대학학위의 상호인정에 관한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가 1998년 서명된 것은 주목할 만하다. 동 양해각서에 따르면 준회원국인 칠레와 볼리비아를 포함한 모든 회원국은 회원국내에 소재한 대학에서 취득한 학위를 법적으로 인정해야 한다. 이러한 합의가 전면적으로 이행될 경우 역내 대학 졸업생들은 역내 6개국 중 어느 나라에서도 취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일부 직종에 대해서 대학졸업수준 전문직의 자격요건에 대한 양자협상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다음 조치는 국가기관의 기존 관행에 기초하여 역내 대학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공동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 노동자 권리 선언; '98년 12월에 개최된 제15차 공동시장이사회(CMC)에서 회원국들은 노동자권리선언(Declaration of Workers Rights)에 서명하였다. 동 선언은 Mercosur역내에서 노동자의 개인적, 집단적 권리의 보호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블록 내에서의 노동자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제도적 차원에서의 진전은 완만하지만, 최근 자동차산업에서 중요한 발전이 이루어졌다. 브라질의 Volkswagen사는 브라질의 노동조합(CUT : Central Uniao dos Trabalhadores) 및 아르헨티나의 자동차 노동조합(SMATA : Sindicato de Mecanicos y Afines del Transporte Automotor de Argentina)과 협정을 체결하였다. 동 협정은 동사의 Mercosur역내 7개 공장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노동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연차회의를 개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 예술작품의 관세 면세; 1997년 12월에 승인된 'Cultural Seal'은 4개 회원국간에 예술작품과 기타 문화 서비스 및 상품의 운송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동 Seal을 부여받은 예술작품들은 세관에서 조사를 받지 않아도 되며 대신 전시장소에서 검사가 행해진다. 또한 일시적 전시를 위해 예술작품을 타 회원국으로 운송할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할 것을 논의 중에 있다 (한국수출입은행, 2000).

3) 정책공조 강화

Mercosur회원국들은 공동무역정책에 관한 작업을 계속하여 왔고, '98년 중반에 공동시장그룹(CMG)은 공동 반덤핑 법률을 개발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후 법률안이 준비되어 현재 평가 중에 있다.

지난해 Mercosur의 경제적 어려움을 계기로 역내 정책조정과 문제 해결에 대한 보다 공식적인 접근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필요성에 대응하여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대통령은 1999년 초 헤알화의 평가절하가 양국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키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회원국 경제에 미치는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공동의 조치를 취할 것을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거시경제 조정위원회(Macroeconomic Coordination Committee), 무역조정위원회(Trade Coordination Committee) 등 2개

의 새로운 위원회가 지난해 6월 설립되었다 (김형주, 2000; 외교통상부, 2000). 먼저 거시경제 조정위원회는 회원국들의 경제정책을 검토하고 거시경제조정을 위한 새로운 제안을 개발하는 것을 임무로 하고 있다. 또한 동 위원회는 거시경제조정을 위한 첫 단계로 회원국들이 발표하는 통계의 산출기준을 일치시키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다음으로 무역조정위원회는 평가절하가 역내 및 역외의 무역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을 임무로 하고 있다.

또한 Mercosur정상들은 EU의 마스트리히트조약(Maastricht Treaty)와 같은 재정균형관련조약(Small Maastricht Treaty) 체결을 통해 장기적으로 역내 단일 통화를 창설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이를 위한 첫 단계로 공공지출을 엄격히 제한하여 재정균형을 달성하기 위한 재정책임법(Fiscal Responsibility Laws)이 현재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의회에서 검토되고 있다. 단일 통화추진과 관련하여 브라질은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이의 조기추진에는 소극적인 반면 아르헨티나는 매우 적극적이어서 상당한 입장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경제정책 조정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최근의 무역불균형이 회원국들간의 현저한 거시경제의 차이 및 정책대응의 속도와 범위의 차이에 기인되었다는 것을 감안할 때 긍정적인 진전이라 할 수 있다 (외교통상부, 2000).

1990년대 심각한 경제불안정을 겪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양국은 서로 다른 시기에 안정화 노력을 추진하여 성과를 거두었다. 먼저 아르헨티나는 '91년에 태환법(Convertibility Law)을 제정하여 1990년대 초 급속한 물가안정 및 경제회복을 이룩할 수 있었다. 브라질은 '94년에 새 화폐인 헤알화를 미국 달러화에 연동시키는 'Real Plan'을 도입하여 심각한 인플레이를 억제하고 경제성장을 회복하였다. 그러나 '97년 말 아시아 금융위기와 '98년 중반의 러시아 경제위기에 의해 브라질 금융이 타격을 입었고 국제수지가 심각한 압력을 받아 이로 인해 '99년 초에 브라질은 자유변동환율제도로 정책의 방향을 수정하였다.

환율제도의 차이가 Mercosur가 최근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핵심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환율문제를 다루는 데에는 두 가지 접근

법이 있다. 먼저 통화접근법(Monetary Approach)은 경제통합의 초기 단계에 단일 통화를 도입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단일 통화는 회원국 간의 환율의 급격한 움직임에 의해 발생하는 위험을 제거하기 때문에 통합과정의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에 반해 구조적 접근법(Structural Approach)은 EU에서 이미 채택, 시행하고 있는 접근법으로서, 단일통화는 장기간의 거시경제 조정이 이루어진 후인 통합과정의 마지막에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후자의 구조적 접근법이 Mercosur내에서 최근 수개월간 우세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재정, 통화, 환율정책의 조정을 위한 첫 단계로 경제 통계의 일치를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4) 산업통합의 증대

Mercosur는 처음부터 국가별, 산업별 보완관계 증진을 위한 물리적 통합을 촉진하여 왔다. 이러한 노력은 Mercosur회원국간의 경제적 상호 의존도가 증대됨에 따라 국가별 에너지 및 운송 관련 사회간접자본의 지역적 네트워크구축 등으로 점진적으로 계속 추진되고 있다.

(1) 에너지부문

에너지부문은 Mercosur 공동시장에 의해 확대된 시장을 구축할 수 있는 최초의 부문이다. 즉 에너지 이동에 대한 규제가 철폐됨으로써 천연가스, 전기, 석유산업 등의 공공 및 민간기업들은 보다 넓은 역내 시장으로 영업활동을 확장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의 변화속도가 지속된다면 향후 10년 이내에 고도로 통합된 역내 에너지시장이 출현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간 천연가스개발에는 '97~'99년 사이에 약 60억 달러가 투자 되었으며, 주요 사업에는 볼리비아의 Santa Cruz와 브라질의 Sao Paulo를 연결하는 총 3,150Km의 가스 파이프라인 설치사업, 아르헨티나의 Mendoza와 칠레의 Santiago를 연결하는 총 465Km의 가스 파이프라인 설치사업, 아르헨티나의 Buenos Aires와 우루과이의

Montevideo를 연결하는 총 220Km의 가스 파이프라인 설치사업 및 최근에 착공된 아르헨티나의 Jujuy와 칠레 북부의 주요 항구인 태평양 연안의 Mejillones를 잇는 총 411Km의 가스 파이프라인 설치사업 등이 있다. 또한 영국의 British Gas사는 향후 2년간 석유 및 천연가스 생산을 위해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볼리비아 등에 50억 파운드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한국수출입은행, 2000).

다음으로 전력부문에서는 1998년에 'Mercosur의 전력교환 및 통합에 관한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of Electricity Exchange and Integration in Mercosur)'가 체결되었다. 동 각서는 국경전기 통합과 전력판매업자에 의한 전력공급원의 자유로운 계약체결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동 협정은 또한 전력의 상호연결을 위한 건설 및 운영에 참여하는 공공 및 민간 기업에 대한 인가, 허가 및 양허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석유회사들은 인수·합병 또는 탐사, 생산 및 판매 등에서의 합작투자를 통해 급속히 역내의 영업활동을 통합하고 있다. 브라질의 Petrobras, 아르헨티나의 YPF, 베네수엘라의 Petroven 사이에 체결된 석유 생산 및 판매에 관한 협정은 이러한 추세를 나타내는 사례이며, 1998년 Petrobras와 YPF는 양사가 상대국에 주유소 개설을 허용하는데 합의하였다.

(2) 역내 운송망 확대

역내 운송망 연결은 기존 각 회원국의 인프라를 기초로 하여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역내의 주요 운송형태인 고속도로는 대서양 연안의 브라질, 우루과이 및 아르헨티나의 주요 도시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기존 'Mercosur Transport Corridor'를 대폭 개선하고 플라타강에 새로운 교량을 건설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남미의 동부 및 중부의 공업 및 부유한 농업지역의 수출업자들이 태평양 연안의 항구를 보다 빨리 이용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어 이에 북부의 볼리비아와 남부의 아르헨티나를 경유하여 칠레와 페루의 무역항까지 연결하는 대양간 Corridor의 개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철도의 상호연결과 2개의 주요 내륙수로 (Paraguay- Parana 및 Tiete-Parana)의 개선으로 곡물, 광물 및 비료의 복합운송체제가 개발되고 있다. 한편 Paraguay-Parana 수로의 개발은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만 다소의 문제도 안고 있다. 동 수로는 브라질,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및 우루과이의 중서부지역을 연결하는 자연운하로 형성되어 있는데, 문제는 건기에 대형 바지선이 강 상류로 항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강을 준설하는데 따른 환경파괴와 비용문제가 동 프로젝트의 전면적인 시행에 대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최근에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현재의 역내 운송체제에 심각한 병목현상이 상존하고 있어 대규모의 역내 교역 물량이 원활히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교통상부, 2000).

IV.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발전과제 및 전망

1. Mercosur의 발전과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를 주축으로 추진되고 있는 Mercosur공동시장은 회원국들간에 많은 갈등과 마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아순시온협약에 명시된 Mercosur공동시장의 목표에는 못 미치지만, 첨예한 대립 속에서도 회원국들 간에 절충과 타협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 Mercosur이 95년에 출범할 수 있었다는 것은 회원국 정상들이 Mercosur형성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며 각 회원국들이 Mercosur에 대해 부여하는 비중과 기대가 막중하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더욱이 안데안 협약의 회원국들인 칠레와 볼리비아가 준 회원국의 자격으로 Mercosur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향후 Mercosur와 안데안 협약국의 통합가능성을 증대시키고 아울러 Mercosur의 잠재력을 더

한층 증대시켜 주었다. 아직은 그 가능성이 불투명하지만, 브라질이 희망하는 대로 Mercosur와 안데안 협약국들과의 통합이 이루어지게 되어 범 남미자유무역지역이 형성되면, 국제사회에서 브라질의 역할은 더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Tendencias, 2000).

Mercosur가 업계, 교역상대국 및 외국인 투자자 사이에 대두되었던 우려를 불식시키고 경제통합계획을 다시 정상궤도에 올려, 관세동맹을 공고히 하고 공동시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환율문제로서 Mercosur의 양대 주축국인 브라질의 해알화의 자유변동과 아르헨티나의 고정환율제를 조화시키고 환율차이를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아직까지 양국간 Mercosur 단일 통화에 대한 견해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아르헨티나가 고정환율제를 포기할 가능성은 아직은 희박해 보인다.

둘째, 대외무역에 대한 회원국의 자의적인 규제가 제거되어야 한다. 자유무역지대 및 대외공동관세에 대한 예외조치가 가능한 한 없어야 한다.

셋째, 무역마찰을 완화시키기 위해 회원국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합의된 공동무역정책들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나아가 거시경제정책의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제도적인 무역분쟁 해결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지난해의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사이의 무역마찰은 제도적인 무역분쟁 해결절차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켰다. 투자자들은 남미공동시장(Mercosur) 양대 회원국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관계악화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지만 Mercosur는 역내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진행중에 있다.

Mercosur는 1998년 동 지역이 경기침체를 겪으면서 역내무역이 축소되자 통합과정의 난관을 겪은 바 있다. 99년 1월 브라질의 해알화 평가절하 이후 아르헨티나산 제품의 가격이 브라질 시장에서 40%까지 상승하자 Mercosur가 붕괴될 지경까지 이르렀으나 브라질 경기가 회복되면서 아르헨티나는 2000년 1/4분기 3억불의 무역흑자

를 기록하였으며,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Mercosur 역내 무역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였다. 아르헨티나는 분쟁 발생시 지금처럼 임시적인 패널을 구성하는 방식 대신에 상설법정을 설립하길 오랫동안 희망했으나 브라질은 주권문제를 내세워 상설법원은 유럽연합의 브뤼셀식 관료주의를 초래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양국은 현재 “법적 심리”를 관장하게 될 2년 임기의 패널 위원 명부를 구성하는 데에만 합의한 상태이다.

또 하나의 현안은 경쟁보장 조치에 관한 것이다. 아르헨티나는 세 금감면, 부지제공등 아르헨티나 소재 기업들의 브라질행을 중단시킨 수 있는 브라질의 투자유인 제공을 중단시키기를 희망하고 있는 반면 브라질은 아르헨티나의 섬유 쿼타 같은 Mercosur 역내 “반덤핑” 조치를 철폐할 것을 바라고 있다. 브라질 관리들은 반덤핑조치야 말로 미국이 브라질 강철에 대해 덤핑혐의를 씌울 수 있는 구실을 제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앞으로 불공정 무역에 관한 공동 정책이 채택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초국가적인 기구의 필요성을 회원국들이 모두 인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Tendencias, 2000). 불공정 무역 문제는 Mercosur 회원국들의 공동의 문제로 대두되어 왔으며 문제의 심각성이 심지어 Mercosur의 존폐의 과제로 등장하여 민간 차원의 부문별 협상이 진행되어 왔으나 이제 모든 문제를 단일 패키지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2. Mercosur의 발전전망

이제 보다 광범위한 공동시장 형성을 위한 기초는 마련되었으나 Mercosur가 공동시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상당히 많은 세부사항이 검토되고 합의되어야 한다. 회원국들간의 많은 이견과 갈등에도 불구하고 양보와 타협을 도출해낼 수 있었던 긍정적인 사태전개와 각 회원국 정상의 굳은 의지에도 불구하고 Mercosur의 장래는 아직 낙관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첫째, Mercosur의 장래를 불투명하게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

는 경제적으로 안정기조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회원국들의 경제 안정과 정치적 안정없이 Mercosur도 과거 이 지역에서 여러 차례 시도하였던 경제통합의 한 실패 사례로서 기록될 것이며, 효율적 경제운용이 불가능하게 되고 회원국들 간의 경제정책 조율도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둘째, Mercosur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회원국들 간에 환율의 조정과 관리가 합리적이며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체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지난 1982년부터 가시화된 외채문제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경우 매우 심각한 영향을 띄게 되면서 환율정책은 단순한 외환관리 정책으로 전락되었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와 같이 경제력 집중현상이 두드러진 나라의 경우 국내산업의 보호와 수출품의 가격경쟁력 보호라는 기치 하에 현실적 상황을 무시하며 적용된 환율관리정책은 오히려 산업의 생산성과 투자의 효율성에 엄청난 타격을 주었으며, 결국 산업의 국제경쟁력 상실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정치민주화도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경우 환율정책에서 새로운 국면을 가져왔다. 오랫동안 유지되어온 기존의 정치적 경제적 질서가 붕괴되고 새로운 질서가 등장하는 과정에서, 새로이 수립된 민주정부의 정치적 경제적 역량에 대하여 국민들은 의구심과 불안의 시선을 보내게 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환율의 변동이 곧 신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가늠하는 척도로 이용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경제논리와는 관계없이 국내 정치적 상황에 따라 환율이 관리되어 이 지역경제의 난맥상을 초래하는 원인으로서 작용하였다.

현재 아르헨티나의 환율 안정화 정책은 중기적으로 미 달러화에 연계시켜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이 또한 시장현실을 무시한 환율관리정책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이며, 경제기반이 취약하므로 국제수지 악화현상이 재등장하여 안정세를 뒤집을 가능성은 상존한다. 브라질의 경우 외환의 철저한 관리정책으로 국제금융계와 약속한 외채관련 협약을 엄수하여 환율을 점진적으로 안정시키는 노력을 펼쳐오고 있다.

Mercosur의 두 주역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현재 양국간 환율

정책 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로 상이한 환율관리에 관한 정책의 조정방안으로서 유럽공동시장의 EMU(European Monetary System)형태의 구조를 취하는 방안을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어떠한 방식을 채택하든 회원국들 간에 합리적인 환율정책의 정착없이 Mercosur의 성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셋째, 회원국 내의 정치적 불안정 또한 Mercosur의 성공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각각 금년과明年에 대통령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그 결과는 현재 모두 불투명하다. 새로 들어서는 정부들이 Mercosur에 대한 지지를 심각할 정도로 변경할 가능성은 적지만 약화시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경제적 여건이 악화되면, Mercosur관련 정책들은 더 긴급한 목표의 뒷전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상존한다. 원래의 아순시온협약에서 지향하던 목표를 달성하고 주변국가들을 포함하는 광역시장을 형성하려는 Mercosur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관성 있는 정치력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뒷받침 하여줄 민주화의 정착과 강한 정치적 리더십의 확보는 또 하나의 선결요건이다.

넷째, 공동시장 형성에 장애가 되고 있는 또 하나의 요인은 각 회원국들의 생산구조의 문제이다. 특히 농산물 생산구조를 보면 회원국간에 보완적 관계가 없으며 경쟁적 관계만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 갈등과 마찰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Mercosur역내 농업정책의 일원화는 농산물시장 통합을 위한 선결과제이다. 최저가격정책, 정부의 재고유지정책, 금융특혜 등의 방법이 없어지지 않는 한 공동시장이 완성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수단의 철폐는 회원국들의 이해관계가 달라 쉽게 합의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이들 정책수단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브라질의 경우 특별 지원금과 소수 농축산품목의 최저가격 유지정책을 가지고 있을 따름이며, 우루과이와 파라과이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농축산물 수출국이면서도 브라질과 비교해 볼 때 정책적 지원과 보호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편이다.

주변국들에 비해 브라질은 다양한 대규모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 1억 6,000만 인구에 대한 농산물수급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수확량의 불안정과 국제 곡물가격의 빈번한 변동은 국내 물가안정에 커다란 애로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Mercosur형성에 따른 최저가격 유지정책의 철폐는 생산과 국내 소비수준에 대해 예측불허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반면 다른 회원국은 브라질과 같은 정책적 지원을 보장할 수 없이 불공평한 조건에서 경쟁을 하여야 되는 문제가 있다.

다른 여타 산업분야에서는 브라질이 Mercosur회원국들과 비교해 월등한 기술수준을 보유하고 있는 점이 실질적인 문제로 되고 있다. 지난 20년간 거시경제의 불안정에도 불구하고 브라질의 몇몇 산업분야는 기술과 품질 면에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성공하였으나, 많은 분야가 정부의 지원과 보호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공동시장형성 후에도 이러한 상황은 변화를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V. 결론

Mercosur 공동시장 추진 배경과 목표가 경제통합을 통한 시장확대와 지역 경제발전이며, 이러한 목표를 위해 거시경제정책의 조율과 상호보완성의 유지 등을 들고 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회원국들간의 유대를 강화할 정치적 의지가 요구되었다. Mercosur는 그동안 많은 갈등과 이해관계의 대립 등으로 진통을 겪었으나 현재 역내 국가들간의 교역활성화와 이에 따른 이익이 구체화되면서 비교적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점진적인 남미 전체의 경제통합이라는 가치아래 Mercosur는 역외국가와의 관계강화를 통한 외연적 확장에 매우 적극적인 바, 칠레 및 볼리비아와 FTA (Free Trade Agreement)를 체결한데 이어 인접 공동체인 안데스공동체(CAN)와도 FTA 협상을 진행시켜 남미자유무역지대(SAFTA) 실현을 목전에 두고 있다. 또한 Mercosur는 2005년 12월 출범을 목표로 세계 최대 경제공동체인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협상에도 중남

미국인들의 이해를 대변하여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EU와도 1999년 6월 FTA 협상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Mercosur 회원국들은 아시아 경제위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전세계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둔화, 국제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역내 금융시장 혼란 및 외국인 투자감소, 재정적자 과중과 이에 따른 정부의 긴축정책 실시, 그리고 역내 국가간의 수출입 감소 등으로 경제상황이 악화되었으나 작년부터 전반적인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Mercosur의 공동시장 구축과 발전에는 경제적 안정과 정치적 안정이 절대적으로 요구될 뿐 아니라 역내 안정을 위해 불안요인 작용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최근 브라질의 전력부족 현상은 경제성장으로 전력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공급이 뒷받침 못하여 경제성장의 새로운 불안요인으로 등장한 것이다. 이러한 불안요소의 파급효과는 역내 국가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에 유사한 불안요소들을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치적인 유대와 의지가 회원국들간에 필히 요구된다. 아울러 정책적 조율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또한 Mercosur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요구된다. 최근 회원국간의 갈등요인 중에 하나인 환율조정문제와 농산물 생산구조의 문제는 회원국간의 보완적 관계가 없고 경쟁적 관계만 부각되어는 전체적인 공조 분위기를 해칠 수 있는 불안요소로서 이에 대한 해결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2001년 4월에 캐나다 퀘벡에서 있었던 미주정상회담에서 미주자유무역지대 형성에 대한 합의는 중남미 국가들에게 새로운 교역환경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어 Mercosur의 성장발전도 이러한 테두리 안에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 나라와 Mercosur간에는 무역불균형 문제가 주요 통상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바, Mercosur 회원국에 투자 및 유·무상지원 확대, 기술협력, Mercosur 제품의 적극적인 수입정책 등을 통한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조치가 긴요한 실정이며 앞으로 호혜적인 경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Mercosur의 발전 방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분석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 김원호, “중남미의 신경제질서와 우리의 경제협력 정책방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보고 96-02, 1996
- _____ 외, “미주지역 경제통합의 전망과 한국의 대응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7
- _____ 편, “한·브라질 21세기 협력비전과 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9
- 김희주 외, “중남미 경제의 개혁과 시장특성화분석,” 「산업연구원」, 1997
- 김형주, “미주경제의 통합 전망과 시사점,” 「LG경제연구원」, 2000
- 국가정보원, 「중남미 정치·경제 리포트」, 1999, 2000
- 박윤재, 윤현덕, “남미경제통합의 현황과 전망 - Mercosur를 중심으로 -,” 「지역연구」(서울대학교 지역종합연구소), 제3권 제3호, 1994
- 신인섭, “Mercosur의 경제현황 및 전망” 「해외경제연구소」, 2000.
- 외교통상부, 「월간 중남미 정보」, 각호 2000, 2001
- 조희문, “남미공동시장(Mercosur),” 「대한무역진흥공사」, 1993
- 한국수출입은행,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추진 현황과 전망”, 2000
- _____ “중남미 경제의 회고와 전망”, 2000
- _____ “1990년대 후반의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 분석”, 2000
- _____ “경기회복세 기대에 못 미쳐”, 2000.11
- _____ “신정부 출범이후 경제회복 예상”, 2000.2
- _____ “남미자유무역지대를 위한 첫걸음”, 2000.10
- _____ “MAQUILA산업 활성화 조치와 우리의 시사점”, 2000. 2
- Adriano Branco, *Mercosur; Impasse e Alternativas*, Sao Paulo:ADEBIM, 1994 V.2
- Almeida, Paulo Roberto de, *MERCOSUL: Textos Basicos*, Brasilia: IPRI, 1992
- _____ “Dois Anos de Process Negociador no MERCOSUL: Caminhos e Instrumentos da Integracao,” *Boletim de*

Integracao Latino-Americana, Numero Especial, 1993

Barham, John and Patrick McCurry, "Mercosur Four Limp to Custom Union Signing," *Financial Times*, Aug.5, 1994.

Comision Economica para America Latina y el Caribe(CEPAL), *Estudio Economico de America Latina y el Caribe; Brasil, Argentina, Uruguay, Paraguay, 2000.*

McKinsey Global Institute, "Produtividade: A Chave do Desenvolvimento Acelerado no Brasil," 1998

Tendencias, *Economic Outlook; Argentina, Brazil, Uruguay, Paraguay, 2000*

The Economic Intelligence Unit (EIU, Country Report), Argentina, Brazil, Paraguay, Uruguay, *The Economist, 1993-1999*